

# 논문작성법 특강\*

2008년 1월 23일(수) 10:00~1:00 전남대학교

## 박재성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음악이론전공)

- |                 |
|-----------------|
| I. 논문의 본질       |
| II. 논문의 요건      |
| III. 논문의 유형과 특성 |
| IV. 연구단계        |

### I. 논문의 본질

논문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항상 접하고 있고, 때로는 스스로 집필하여 발표해 보기도 하는 것이 이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위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되면 누구나 선뜻 대답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논문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자각없이는 결코 남의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훌륭한 논문을 써 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논문 작성법의 이모저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오늘날 우리가 극히 자명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이 논문의 개념부터 먼저 되살펴 볼 필요가 있다.

논증을 갖춘 입론(立論)이라는, 넓은 의미에서의 논문이라고 할 만한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찍이 고대에서부터 두루 발견된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엄밀한 의미에서의 학술논문은 근대과학의 발흥과 더불어 비롯된 것으로, 그 역사가 그다지 오래지 않다.

서양 근세사를 보면, 인문학 분야에서 13, 14세기 이래 학자들의 모임이 학회의 형태로 발전하고, 16세기에 들어서면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학회가 출현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영국에서는 「왕립학회」(The Royal Society of London for the Improving of Natural Knowledge, 1660), 프랑스에서는 「과학원」(Académie des Sciences, 1666)의 설립으로까지 본격화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회들에서는 각기 나름대로의 간행물을 발간하여 지식의 교류를 통한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였는데, 여기에 실리기 시작한 글들이 간행물 제작상의 편의와 정보의 신속·정확한 전달을 위해 차츰 일정한 체제와 규격을 갖추어감에 따라 오늘날과 같은 논문의 틀이 잡히게 된 것이다.

한편 학자들로서도 당시의 급속한 과학 발전의 추세 때문에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를 종래와 같이 방대한 저술의 형태로 발표하려고 했다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취권을 빼앗길 우려가 없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발표 수단으로 학회의 간행물에 간략한 보고서체를 게재하는 방식을 즐겨 택하게 되면서, 이것이 연구 발표의 일반적인 형식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용의 “독창성”과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간명한 서술 체제”를 그 본질로 삼는 근대적인 논문의 개념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 아래 참고문헌들에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본 원고가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  
· 고려대학교 출판부 편, 「새로운 논문작성법」(2003)  
· 서울대학교 출판부 편, 「논문작성법」(2006)  
· 연세대학교 연구처 편, 「새논문작성법」(2004)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편, 「연구방법과 논문작성법」(2004)

## II. 논문의 요건

전통적인 논문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논문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더라도 역시 독창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독창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소재가 새로와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미 남이 손 댄 소재라도 그것을 다루는 방법이나 연구의 각도, 또는 결론으로 이끄는 방법이 새로우면 독창적이라 할 수 있다. 연구의 결과가 남의 것과 비슷하더라도 이론상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것이면 역시 독창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주제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 알아낸 사실과, 이에 대한 연구자 자신의 비평이나 평가를 종합한 것을 논문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독창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논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 :

- 남의 저술을 요약한 것
- 남의 견해나 주장을 비판없이 옮겨 놓은 것
- 여기저기서 인용하여 교묘하게 꾸며 놓은 것
- 입증되지 않은 개인적인 견해가 담긴 것
- 간행·미간행, 또는 전문가의 저술이든 비전문가의 것이든,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옮긴 것

### 1. 논문은 독창성(originality)·검증성(virification)·객관성(objectivity)을 그 본질로 한다.

- (1) 새로이 발표되는 논문은 자료·연구방법·연구결과 및 해석, 이들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에 있어서 새로운 면모를 보인 것이어야 한다.
- (2) 확실하고도 충분한 증거가 일정한 논리와 방법에 따라 제시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 (3) 연구자의 주관은 가급적 배제되어야 하며, 자료 및 연구방법의 선택, 자료의 비교·해석 등에 불가피하게 개입되는 가치판단을 적절히 통제하여 내용의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사실”과 “증거”가 논문을 뒷받침해야 되고, 집필자의 단순한 의견이나 또는 주관적인 생각이나 자료가 바탕이 되어서는 안된다. 예컨대, “나는 원인은 그렇고 결과는 이렇다고 믿는다”는 식의 주관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집필자의 의견이 연관될 때에는 연구과정에서 얻은 자료가 증거로서 제시되어야 하고, 독자가 다른 자료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의견의 근거가 밝혀져야 한다.

### 2. 논문은 정확성(accuracy)·간결성(brevity)·평이성(readability)을 그 본질로 한다.

- (1) 논문의 내용은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논리학 및 수사학(修辭學, rhetoric) 상의 일반 원리를 준수해야 함은 물론, 문자 부호 하나까지도 그릇되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 (2) 논문은 그 내용에 적합한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논지(論旨, point) 전개에 불필요한 일체의 부연 설명 따위를 배제한 간결한 것이어야 한다.
- (3) 논문은 읽는 사람의 관심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연구자라면 누가 읽어 보아도 그 논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평이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과거의 현학적인(이론이 깊어 깨치기 어려운) 경향과는 달리 오늘날의 논문은 알기 쉽게 써여질수록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 III. 논문의 유형과 특성

#### 1. 논문의 일반적인 분류

- 연구논문(research paper)
- 보고문(report)
- 평론(review)

우리는 흔히 “논문”이라는 포괄적인 용어 하나로 간단히 처리하지만, 논문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고 저마다 그 성격을 달리한다. 논문의 유형과 그 특성을 이해하자면 “논문”에 해당하는 영어의 어휘를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 **Article** : 신문이나 잡지, 또는 학술지(또는 논문집, journal)에 게재되는 비교적 간단한 논문을 일컫는다.
- **Monograph** : 본래는 박물학(natural history)의 논문으로서 잡지에 게재되거나 책자로 단독 간행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지금은 학문의 분야에 관계없이 이 용어가 쓰이기도 하며, 논문이 다루는 주제의 전문성이 강조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 **Treatise** : “매우 체계적인 논문”(systematic exposition)을 일컫는다.
- **Essay** :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논문”이다. 위의 treatise보다 덜 체계적인 것을 가리킨다.
- **Dissertation, Thesis** : 주로 학위논문을 일컫는데 쓰인다. 흔히 dissertation은 박사학위논문을, thesis는 석사학위논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지만, 학위의 위치에 따른 구별이라기보다는 논문의 성격에 따라 용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 대학에서 전문 연구자가 아닌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논문

- (1) 각종 리포트(term paper 등) : 대학생들이 학기 말에 혹은 수시로 제출해야 하는 짝막한 논문이나 간략한 보고서를 이른다.
- (2) 학위논문(학사·석사·박사학위논문, thesis 혹은 dissertation) :
  - ① 학위논문은 전문 연구자가 아닌 학생이 학문적 공헌보다는 일정한 학위의 취득을 주목적으로 하여 쓰는 논문이라는 점에서 연구논문(research paper)과 차이가 있으나, 연구논문의 일반적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연구논문의 한 특수형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학위논문 가운데서 흔히 관습적으로는 학사학위 청구논문을 “졸업논문”이라고 하여 석사 및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위한 “학위논문”과 구별하고 있다.

#### 3. 학위논문

- (1) 학위논문은 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통과한 사람으로서 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제출하는 논문을 말한다.
- (2) 졸업논문과 마찬가지로 지정된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서 쓰여지는 것이지만, 학위논문에서는 졸업논문보다 학생의 독립적 연구 능력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 (3) 학위논문은 수준 높은 연구 결과를 담은 것이라도 전문지(학술지)에 발표되는 논문과는 구별된다. 전문지의 논문은 학문에 대한 기여가 강조되고, 한편으로는 제작상의 문

제와 독자의 시간 절약이라는 관점에서 논문의 간결성이 크게 요구된다. 이에 반하여 학위논문은 연구자의 능력 과시를 그 기능의 하나로 하고 있다.

- (4) 석사학위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 연구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드러내 보일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석사학위논문은 완벽한 방증, 주제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 충분한 자료 제시 등을 통해 전문적 연구가로서의 자질을 과시하는 노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 (5) 박사학위논문에서는 독창적인 연구를 통해 해당 분야의 학문에 현저한 공헌을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박사학위논문은 새로운 학설의 제시, 새로운 사실의 발견, 또는 혁신적 연구방법의 정립 등을 통하여 해당 분야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이어야 한다.

## IV. 연구 단계

연구 단계에서는 연구의 주제를 설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사전 연구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완벽하게 정리해 놓아야 한다. 이와같이 해서 수집·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논문의 구상을 하고, 개요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단 논문을 쓰기 위한 사전 준비는 마친 셈이 되는 것이다.

### 1. 주제의 선정

논문을 쓰고자 할 때에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제를 잡는 것, 즉 “무엇”에 대하여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평소에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새로운 문제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이미 이루어진 연구 업적들을 두루 살피다 보면 풀리지 않은 문제, 빠뜨린 문제, 앞으로 좀 더 밝혀져야 할 문제, 더러는 잘못 풀린 문제들이 발견되기 마련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 중 어느 것을 택하여 논문의 주제로 잡을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논문의 가치는 그 논문의 주제가 갖는 의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주제의 선정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문제를 택할 것
- 가능성을 고려할 것
- 독창성 있는 문제를 택할 것
- 발전성 있는 문제를 택할 것

이와같이 해서 선정된 주제가 구체적인 연구 과정을 거치면서 다듬어져 간략한 문장으로 표현된 것이 다름 아닌 그 논문의 제목, 즉 주제가 된다.

### 2. 사전 연구계획의 수립

주제의 선정과 동시에 논문 작성의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실제로 대부분의 연구는 제한된 시간의 여건 하에서 진행될 수 밖에 없으므로 논문을 작성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계획을 세워 두지 않으면 낭비와 시행착오를 피하기가 힘들 것이다. 논문 작성을 위한 사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연구의 기본 성격을 결정할 것
- 시간 계획을 세울 것

### 3. 자료의 수집

- (1) 예비조사
- (2) 자료의 평가
  - ① 정확성
  - ② 참신성
  - ③ 권위
  - ④ 이 밖에 해당 논저의 서문이나 서론 부분만 읽어보면 대충 그것이 논문의 주제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별할 수가 있으며, 목차·참고문헌란·색인·부록 등의 짜임새 역시 자료 평가의 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내용이 충실한 문헌은 대체로 그 짜임새마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 (3) 자료의 채록 : 아래의 항목들은 모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화 시키는 것이 좋다.
  - ① 채록을 위한 기록장
  - ② 카드 작성 요령
    - 문헌카드 :
      - **단행본** : 저자명, 서명, 총서명과 권수, 발행판수, 출판지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인용 및 참고한 쪽수, 도서청구기호
      - **논문** : 필자명, 논문 제목, 게재지명 혹은 논문집명, 권수 및 호수, 발행 연월일, 인용 및 참고한 쪽수, 게재지(논문집) 청구기호
      - **사전류·잡지 혹은 신문 기사류·기타** : 위의 항목들에 준하여 그 정보를 기입해 둔다.
    - 내용 카드 :
      - 자료의 내용을 요약할 때에나 의역을 할 때에 자기의 주관을 섞어서는 안된다.
      - 원문을 직접 인용할 때에는 따옴표를 사용하여 요약하고, 채록한 간접 인용의 글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한문이나 외국어로 되어 있는 자료는 번역을 하여 원문과 병기해 둔다. 논문을 쓸 때에 원문은 각주(footnote)로 돌려 처리하고 본문에는 그 번역문을 인용하는 것이 좋다.

### 4. 개요 작성